

##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김 보 라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역경을 겪더라도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삶의 의미의 두 하위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매개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이를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이 의미추구 과정, 의미발견 과정, 그리고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모형을 각 집단에 적용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집단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에 대한 대처반응으로써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또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논하였다.

주요어 : 외상 후 성장, 자아탄력성, 삶의 의미, 의미추구, 의미발견

\* 본 연구는 김보라(2010)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사건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들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크나큰 심리적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를 외상(trauma)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교통사고나 폭력, 자연재해 등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비롯해 연인과의 이별이나 친구와의 갈등 등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경험들까지도 포함한다(한노을, 2008). 이러한 경험은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병리적인 상태로까지 몰고 가지만, 어떤 개인들은 강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스트레스와 외상적 사건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찰은 고대 히브리와 그리스의 철학, 초기 기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주요 종교의 가르침에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통의 힘에 대한 언급에도 찾아볼 수 있다(한노을, 2008). 또한 인본주의 및 실존주의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오랫동안 고통의 결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야 풍부한 개념적 모델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엄격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Park & Helgeson, 2006).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 명명하고, 외상 경험의 여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정의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외상 사건이나 위기 사건을 겪은 후에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Maercker & Zoellner, 2004)이며, 여기에서의 변화란 외상 사건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적응 수준, 심리적 기능 수준, 또는 삶의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의미한다. 즉, 외상 후 성장은 생애 주요 위기나 외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변화 또는 변화의 인식(Tedeschi & Calhoun, 1996)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경험되는 변화로는 긍정적인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및 영적 변화가 있다.

하지만 외상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반드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에 따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고통과 성장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경험은 그 사건의 객관적인 위험성이나 중요도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정의된다(한노을, 2008). Billings와 Moos(1981)는 스트레스 자체와 적응간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으며 개인의 적응력은 사회적 환경요인이나 개인적 특성 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양자와 정남운(2008)은 외상 후 성장이 개인의 신념, 목표, 행동 그리고 정체감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지혜의 발달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이므로, 외상을 겪기 전 개인의 변인과 사회적 지지 변인 및 고통의 인내가 대처과정과 외상 후 성장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을 얻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 및 사건의 여파에 대처하는 개인의 전략들이 중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학적 개념인 자아탄력성(Block & Block, 1980)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구형모, 황순택, 2001)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주관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회복하고 성장을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외상에 대한 투쟁이다. Westphal과 Bonnano(2007)는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범위에서 외상에 대한 적응에 있어 외상 후 성장의 역할을 조명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혹한 불운의 화살을 맞고 견뎌내는 것뿐만이 아닌, 실제로 그 결과로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ark & Hegelson, 2006). 탄력적인 개인은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실수/좌절/방해물을 피해야 할 스트레스원으로 보기보다는 직면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성장을 이루게 하며 자멸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한다.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약점으로 보기보다는 향상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Goldstein & Brooks, 2006). 선행 연구에서도 초기 감정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개인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을 탐색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들은 더욱 건강한 성격들을 개발했

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Woodward & Joseph, 2003).

그렇다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혹은 이를 겪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가? 이는 외상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녕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즉, 외상을 딛고 일어서 성숙한 개인으로써 안녕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적응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스트레스나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Ai, 2006; Park & Folkman, 1997; Tedeschi & Calhoun, 2004). 외상과 같이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주관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경험이 주는 의미나 목적을 깨닫는 것은 그 경험에 대처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신선영, 2009). 즉, 인간은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이익을 찾도록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외상 해결의 종착점은 성장이라는 것이다(Joseph & Linley, 2006). 특히,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은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나감으로써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간다고 알려져 있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삶의 대한 통일감(Battista & Almond, 1973), 사건이 일어난 귀인과정(Bulman & Wortman, 1977), 경험에서 부정적인 면들을 초

월할 수 있는 특징을 발견하는 대처 행동(Thompson, 1985)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Peterson, Park & Seligman, 2005; Zica & Chamberlain, 1987).

전통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증상만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데도 관심을 쏟아왔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개인의 적응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진다(Lent, 2004). 즉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사건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이점과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처전략은 부정적인 정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고, 좌절스럽고 불안정한 감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준다(Westphal & Bonnano, 2007).

삶의 의미에 대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지향 및 동기인 의미추구와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의미발견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영(2009)에 따르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와 노력이 실제로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Davis, Wortman, Lehman & Silver, 2000). 또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처반응으로써 의미 발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추구만을 하는 과정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불편

감은 삶의 만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정미영, 2009). 하지만, 의미추구는 다른 긍정적인 성격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의미발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의미발견의 영향을 통제된 결과에서도 경험에 개방적이고 성실하며 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원두리, 2005). 이러한 경향성은 의미추구가 독립적으로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각각 독립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추구의 경우에는 이것이 의미발견으로 연결되었을 때 성장과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듯 외상 후 성장은 삶의 도전들에 대항하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외상 경험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인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상 후 성장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적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과 이후 개인의 안녕감에 기여하는 새로운 변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Linley & Joseph, 2004). 외상 후 성장과 적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외상 이후의 시간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지만(McMillen, Smith & Fisher, 1997; 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심리 사회적 자원, 외상 사건의 심각도, 외상 후 이익과 손실에 대한 지각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외상 후 성장을 발달시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보고(McMillen, Zuravin & Rideout, 1995)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Lechner, Azkowski, Antoni, Greenhawt, Block & Block, 2002). 이렇게 혼란스러운 결과들은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성인에게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Joseph, Knibbs & Hobbs, 2007). 또한 남성 혹은 여성이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주장도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Weiss, 2002; Tashiro & Frazier, 2003). 하지만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이 사용되었고,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개인의 특성인 자아탄력성과 외상에 대처하는 개인적인 노력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이와는 독립적으로 외상에 대처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써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의 영향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과정이 연령과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조

명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룰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가설.** 스트레스 상황이 야기한 주관적 고통을 경험했을 때,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A대학교 학생 211명과 서울 J중학교 110명, 오산 W중학교 학생 98명, 서울 M고등학교 학생 75명, 총 49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84명의 자료를 제외한 결과 41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외상 사건 당시에 얼마나 고통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고통의 정도를 보통 이하로 응답한 59명을 제외한 나머지 총 351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측정도구

###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체 21문항에 6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 내적인 힘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삶에 대한 감사를 통한 성장을 평가하는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edeschi 등(1996)이 개발한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송승훈 등(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여러 외국 논문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89)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안한 뒤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체 14개 문항에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자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76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teger 등(2006)이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과 권선중(2005)이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10문항에 7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의미추구가 의미의 과정이라면, 의미발견은 의미의 결과이다. 이들은 몇몇 변인들을 공유하지만, 다른 측정치들과의 상관 유형에서 비교적 독립적이다(Steger et al., 2006).

Steger 등(2006)이 여러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의미추구가 .86-.87로 나타났으며, 의미발견은 .82-.86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모두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가 .91로 나타났고, 의미발견은 .84로 나타났다.

### 외상 경험 질문지

외상 사건의 종류와 외상 경험의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승훈 등(2009)이 사용한 것을 신선영(2009)이 보완한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힘들고 비극적이고, 극심하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외상 사건'이라 정의한 뒤 이를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상 경험 당시와 최근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SPSS

18.0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초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추구하고 발견 과정의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고, 이중매개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4.2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Sobel 검증의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Bootstrap 방법을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상 후 성장 과정 모형이 성별과 연령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초 통계 및 상관 분석

참가자들의 성별은 전체 351명 중 남자 154명(43.90%), 여자 197명(56.1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성인은 182명(51.90%)로, 만 19세부터 만 46세까지 평균 연령은 23.01세였

표 1. 외상 사건의 유형

외상 사건의 유형	빈도	%
1. 사고 및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폭발 등)	49	6.80
2. 자연 재해 (홍수, 지진, 폭설 등)	6	0.80
3.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18	2.50
4. 성추행 및 성폭력	12	1.70
5.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26	3.60
6.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27	3.70
7.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58	8.00
8. 대인관계 파탄 (이별, 실연, 절교 등)	124	17.20
9. 적응의 어려움 (학교, 사회, 군대에서 소외, 따돌림 등)	103	14.30
10. 이혼 및 별거 (본인 및 부모)	18	2.50
11. 학업, 과업 문제 (낙방, 실패, 좌절 등)	118	16.30
12. 배신 충격 (거짓말, 외도, 속임, 사기 등)	81	11.20
13. 재정적 어려움 (부도, 파산, 신용 불량 등)	37	5.10
14. 실직, 구직의 실패	19	1.40
15. 어린 시절의 학대	13	1.80
16. 기타	22	3.00
합계	722	100.00%

주. \*\*  $p < .01$ , \* $p < .05$

다. 또한 청소년은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 169명(48.10%)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5.22세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의 유형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은 대인관계 파탄(이별, 실연, 절교 등)으로 총 351명 중 124명(17.20%)이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학업, 과업 문제(낙방, 실패, 좌절 등)가 118명(16.30%), 적응의 어려움(학교, 사회, 군대에서 소외, 따돌림 등)이 103명(14.30%)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응답한 기타의 내용은, 부모 및 가족 간의 불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피해를 준 것, 지인이 화재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본 경험 등이 있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미추구

와 의미발견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외상 경험과 그에 따른 주관적 고통을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응답자의 자아탄력성,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변인들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연령에서 의미추구( $t(349)=-4.06, p<.001$ ), 의미발견( $t(349)=-5.10, p<.001$ ), 외상 후 성장( $t(349)=-3.03, p<.01$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자아탄력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더 많이 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인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 $t(349)=2.34, p<.05$ ), 의미발견( $t(349)=4.44, p<.001$ ), 외상 후 성장( $t$

표 2. 각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1	2	3	4
1. 자아탄력성	1			
2. 의미추구	.38**	1		
3. 의미발견	.40**	.47**	1	
4. 외상 후 성장	.43**	.40**	.47**	1

주. \*\*  $p < .01$ , \*  $p < .05$

표 3.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명	청소년 (n=169)	성인 (n=182)	전체 (n=351)	t
자아탄력성	35.38 (7.95)	36.77 (6.54)	36.10 (7.28)	-1.79
의미추구	22.17 (7.32)	25.01 (5.60)	23.65 (6.63)	-4.06***
의미발견	18.80 (6.36)	22.19 (6.06)	20.56 (6.43)	-5.10***
외상 후 성장	71.90 (20.82)	78.33 (18.90)	75.23 (20.08)	-3.03**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 )안은 표준편차임.

표 4.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명	남자 (n=154)	여자 (n=197)	전체 (n=351)	t
자아탄력성	37.13 (7.38)	35.30 (7.12)	36.10 (7.28)	2.34*
의미추구	24.34 (6.09)	23.10 (6.99)	23.65 (6.63)	1.75
의미발견	22.24 (6.27)	19.24 (6.26)	20.56 (6.43)	4.44***
외상 후 성장	78.71 (18.94)	72.51 (20.57)	75.23 (20.08)	2.90**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 )안은 표준편차임.

(349)=2.90,  $p < .01$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의미추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변인에 대해서는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의미추구의 경우에만 남녀 간 성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4개의 잠재변인(자아탄력성,

의미추구,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을 가진 측정모형을 검증하는데 19개의 측정변인들이 선택되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림 1에 제시한 측정모형 검증 결과,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유의미하였으며, 전반적인 적합도는  $\chi^2(59)=131.84$ , RMSEA=0.06(90% CI= 0.046, 0.073), TLI=0.95, CFI=0.96, NFI=0.93으로 양호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매개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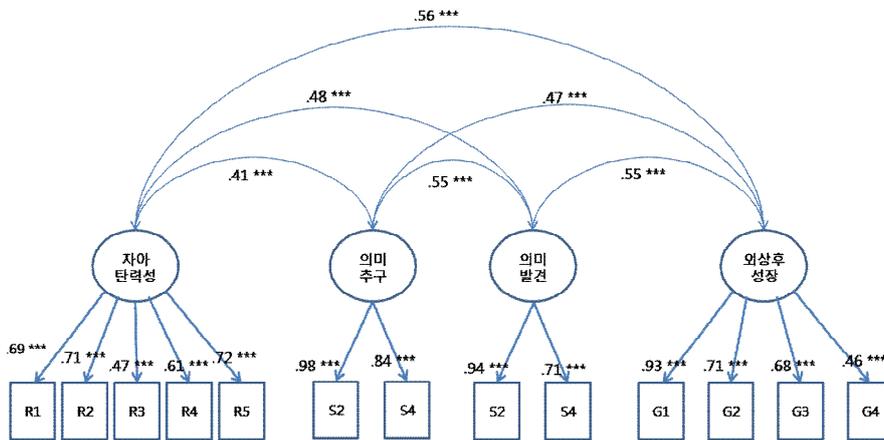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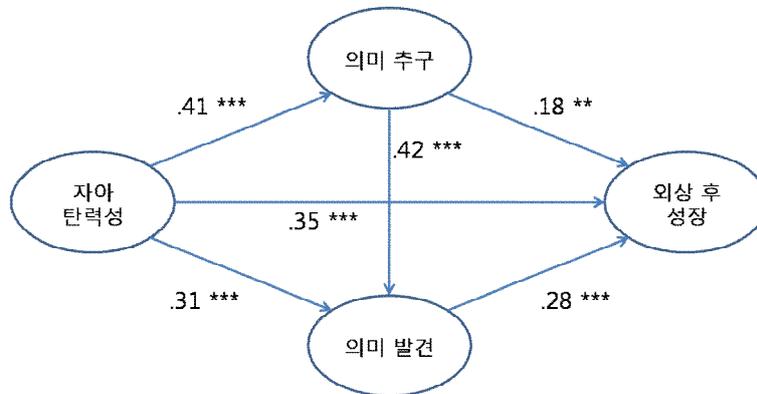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확인하기 위해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모형의 적합도는  $\chi^2(59)=131.84$ , RMSEA=0.06 (90% CI= 0.046, 0.073), TLI=0.95, CFI=0.96,

NFI=0.93으로 양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 제시되었다.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이 의미추구에 영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자아탄력성,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 과정의 매개모형

표 5. 매개모형 효과 검증

효과	경로	Bootstrap Estimate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S.E.	lower 95%	upper 95%
직접효과	a	1.38 (0.41)	0.23	0.91	1.82
	b	0.27 (0.18)	0.11	0.06	0.48
	c	1.00 (0.26)	0.26	0.52	1.56
	d	0.45 (0.28)	0.14	0.20	0.73
	e	0.41 (0.42)	0.07	0.28	0.55
	f	1.79 (0.35)	0.37	1.07	2.49
간접효과	a*b	0.37	0.15	0.12	0.71
	c*d	0.45	0.19	0.18	0.95
	a*c*d	0.25	0.10	0.10	0.50

주. n=351. Bootstrap samples=2000, 괄호 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a. 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b. 의미추구 → 외상 후 성장, c. 자아탄력성 → 의미발견, d.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e. 의미추구 → 의미발견, f. 자아탄력성 → 외상 후 성장, a\*b. 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외상 후 성장, c\*d. 자아탄력성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a\*c\*d. 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향을 미치는 경로( $\beta = .41, p < .001$ ), 자아탄력성이 의미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 = .31, p < .001$ ), 의미추구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 = .18, p < .01$ ), 의미발견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경로( $\beta = .28, p < .001$ )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beta = .42, p < .001$ )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매개경로(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외상 후 성장, 자아탄력성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의 유의미성과 이중매개(자아탄력성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홍세희, 2007). 하지만 AMOS로 각 매개경로와 이중매개의 유의미성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Mplus 4.2을 사용하여 Phantom variable 방법(Rindskopf, 1984; Cheng, 2007)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자

아탄력성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과정이 독립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집단 차이 분석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발견 과정의 매개 효과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형태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요인구조가 같은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이때 가장 적합한 모형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선정되면 형태 동일성이 만족된 것이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집단의 모형 형태가 동일인지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표 6. 연령과 성별에 따른 매개모형 형태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FI	NFI	TLI	RMSEA	$\Delta\chi^2$
청소년 (n=169)	연구모형	86.09	59	.97	.92	.96	.05	23.79
	경쟁모형	109.88	60	.95	.90	.93	.07	
성인 (n=182)	연구모형	124.45	59	.92	.87	.90	.08	21.21
	경쟁모형	145.66	60	.90	.85	.87	.09	
남자 (n=154)	연구모형	125.27	59	.93	.87	.90	.09	17.67
	경쟁모형	142.94	60	.91	.86	.88	.10	
여자 (n=197)	연구모형	100.10	59	.96	.91	.94	.06	33.57
	경쟁모형	133.67	60	.93	.87	.90	.08	

을 설정하였는데, 연구모형은 연구자의 가설인 부분매개모형으로 정하였다. 또한 경쟁모형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직접 경로를 삭제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의미추구가 반드시 의미발견으로 이어져야지만 긍정적인 삶의 만족과 관련되어진다는 견해를 배제하고,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력만을 가정한 것이다.

모형 간의 비교 평가는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령별 집단의 경우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집단은  $\Delta\chi^2(1)=23.79$  ( $p=.00$ )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성인 집단 또한  $\Delta\chi^2(1)=21.21$  ( $p=.00$ )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따라서 연령별 집단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자유도가 1 작은 연구모형이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택되었다. 한편 성별 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 집단은  $\Delta\chi^2(1)=17.67$  ( $p=.00$ ), 여자 집단은  $\Delta\chi^2(1)=33.57$  ( $p=.00$ )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자유도가 1 작은 연구모형이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택되었다.

#### 측정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데, 앞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 모형(baseline model)으로 설정한다. 또한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성인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과 기저 모형 간의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홍세희, 2001).

먼저 연령의 경우 기저 모형(모형1)과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의  $\chi^2$  차이 검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모형의 차이는  $\Delta\chi^2(15)=30.31$  ( $p=.01$ )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chi^2$  검증과 마찬가지로  $\chi^2$  차이검증도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teenkamp & Baumgartner, 1998), 홍세희 등(2005)의 기준에 따라 RMSEA와 TLI를 고려하였다.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지수이므로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기저 모형의 지수에 비해서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RMSEA의 경우 모형1은 .05, 모형2 또한 .05로 같고, TLI도 값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의 경우에도 두 모형의 차이는  $\Delta\chi^2(15)=25.07$  ( $p=.05$ )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홍세희 등(2005)의 기준에 따라 표 8에 나타난 RMSEA와 TLI를 고려해 살펴보면 RMSEA의 경우 모형1과 모형2의 값이 .05로 같았고, TLI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모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구조동일성 검증

앞서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었으므로 구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는

표 7.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연령별)

	$\chi^2$	df	CFI	NFI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 모형)	531.33	296	.93	.85	.92	.05
모형2: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	561.64	311	.92	.84	.92	.05
모형3: 구조 동일화 제약 모형	564.45	315	.92	.84	.92	.05

표 8.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성별)

	$\chi^2$	df	CFI	NFI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 모형)	542.31	294	.92	.85	.91	.05
모형2: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	570.38	309	.92	.84	.91	.05
모형3: 구조 동일화 제약 모형	574.95	314	.92	.84	.91	.05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약 후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령 집단의 경우 표 7에 나타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과 구조동일성 모형(모형3)의  $\chi^2$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Delta\chi^2(4)=2.82$  ( $p=.59$ )로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표 8에 제시한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Delta\chi^2(5)=4.57$  ( $p=.47$ )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매개모형은 그 모형의 구조가 연령별/성별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고통을 유발하는 부

정적인 스트레스 사건, 즉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그 외상을 극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이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기능을 하도록 대처하는 과정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적응적 대처방략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아탄력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 외상과 같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각각 독립적인 매개로써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 가설을 확인하였다. 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각각이

가지는 간접효과와 의미추구-의미발견 간 순차적 과정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삶의 의미라는 추상적 개념에 속해있는 두 하위요인이지만, 때로는 개인이 성장을 위해서는 겪기 마련인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기에 그 영향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모형을 각 집단에 적용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변인들의 측정모형이나 구조모형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청소년/성인, 남/녀 집단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에 대한 대처반응으로써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또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결과와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이 될 것이다.

우선 첫째로, 외상 유형이나 외상 후의 겪었던 주관적 고통의 심각성 정도, 외상 후 경과된 시간, 또 외상 후 시간이 경과되어 현재 까지도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외상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대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외상 후 회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외상을 겪은 시점과 고통이 시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또 대처방식은 시간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이 어떻게 얻어지고 유지되는지 종단 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 심각하고 더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일수록 지각된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주장도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과 고통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조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외상 후 성장 이후의 적응 및 안녕감의 예측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Zoellner와 Maercker(2006)는 외상 후 성장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성장을 경험한 개인은 삶에서 안녕감, 정서적 고통의 수준, 또는 기타 건강 영역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상 후 성장은 단지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에 불과하다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즉, 이런 현상이 실제로 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지, 또 그 과정이 개인의 적응과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표본의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의 매개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비교해 보고자 했지만, 상대적으로 피험자들의 연령대가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에게 집중되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동이나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집단을 비교하거나, 또는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나 성폭행 등의 범죄 피해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혹은 새터민 등 특정 상황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 검증해봄으로써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대안적 모형에 대한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아탄력적인 개인은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함으로써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가설은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한 점은,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여 성장한 개인이 또 다른 대처방식의 과정이나 개인차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낙관주의나 영적인 믿음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또한 성장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더 노력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점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나 순환적인 연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추후 연구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내는 개인의 심오한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풍부하게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람들이 외상으로부터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지에 대한 과정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형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양적 연구법과 질적 연구법을 함께 사용하면 그 결과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몇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Frazier, Lee와 Steger(2006)의 언급에 따르면 탄력성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Cheng(2001)은 대처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을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대처는 특정 대처전략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대처전략에 대한 유연한 적용은 스트레스 요인의 특성에 걸맞은 대처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탄력성을 가진 개인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응적 대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독립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삶의 의미의 두 하위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독립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에 선행되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거나 혹은 의미발견만을 적응 및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추구가 반드시 의미발견으로 연결되어야만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적응 및 안녕감과 관련된 지표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 Davis와 Morgan(2008)의 연구에서도, 의미추구는 의미발견으로 연결되면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지각하고 성장을 보고하지만, 의미추구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고 성장을 보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인과관계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설명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과 성인, 남자와 여자에게서 외상 후 성장 과정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혔다. 외상 후 성장 개념이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 과정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믿음들이 여전히 발달하고 있는 도식들(still-developing schemas)에 통합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Clay, Knibbs & Joseph, 2009). 한편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통합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구형모, 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45-358.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 189-206.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정미영 (2009). 삶의 의미 발견 과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203-228.

한노을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다집단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미발간 워크샵 교재.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409-427.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 ego-control and ego-resilient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58-167.
- Bulman, R. J., & Wortman, C. B. (1977). Attribution of blame and coping in the "real world": Severe accident victims react to their lo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51-363.
- Cheng, C. (2001). Assessing coping flexibility in real-life and laboratory settings: A multimetho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14-833.
- Cheng, M. W. (2007). Comparison of approaches to constructing confidence intervals for medi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227-246
- Clay, R., Knibbs, J., & Joseph, S. (2009). Measurement of posttraumatic growth in young people: A review.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4(3), 411-422.
- Davis, C. G., & Morgan, M. S. (2008). Finding meaning, perceiving growth, and acceptance of tinnitus. *Rehabilitation Psychology*, 53(2), 128-138.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 find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61-576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E.,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 497-540.
- Frazier, P., Lee, R. M., & Steger, M. F. (2006). What can counseling psychology contribute to the study of optimal human function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2), 293-303.
- Goldstein, S., & Brooks, R. B. (2006). 아동 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 (신현숙 역). 학지사.
- Joseph, S., Knibbs, J., & Hobbs, J. (2007). *Trauma, resilience and growt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 Joseph, S., & Linley, P. A. (2009). 긍정심리치료 (이훈진, 김환, 박세란 공역) (원저는 2006). 학지사.
- Lechner, S., Azkowski, S. G., Antoni, M. H., Greenhawt, M., Block, K., & Block, P. (2002). Do sociodemographic and disease related variables influence benefit-finding in cancer patients? *Psycho-Oncology*, 11, 1-9.
- Lent, R. W. (2004). Toward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82-509.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 41-48.
- Marsh, H. W., & Grayson, D. (1990). Public/Catholic difference in the high school and beyond data: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esting mean

-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5, 199-235.
- McMillen, J. C., Smith, E. M., & Fisher, R. H. (1997). Perceived benefit and mentalhealth after three types of disast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733-739
- McMillen, J. C., Zuravin, S., & Rideout, G. (1995). Perceived benefit from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1037-1043.
- Park, C. L., & Ai,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389-407.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 115-144.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796.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25-41.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 37-4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eenkamp, J. 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Tashiro, T., & Frazier, P. A. (2003). "I'll never be in a relationship like that again": Personal growth following romantic relationship breakups. *Personal Relationships*, 10, 113-128.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y Inquiry*, 15(1), 1-18.
- Thompson, S. C. (1985). Finding positive meaning in a stressful event and coping. *Basic and Applied Psychology*, 6, 279-295.
-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 65-80.
- Westphal, M., & Bonnano, G. A. (2007). Posttraumatic growth and resilience to trauma: Different sides of the same coin or different coi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6(3), 417-427.
- Woodward, C., & Joseph, S. (2003). Positive change processe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 people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abuse: Understanding vehicles of chang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 267-283.
- Zica, S., & Chamberlain, K. (1987). Relation of hassles and personality to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55-162.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26-653.
- 원 고 접 수 일 : 2010. 01. 16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2. 19  
게 재 결 정 일 : 2010. 02. 22

##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meaning in life on posttraumatic growth: Mediating effect of searching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Bora Kim**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go-resilience on posttraumatic growth(PTG), and if the searching for meaning and the presence of meaning mediated the effects. For this study, a total of 351 participants was recruited and their response were used. The multi-group analysis also investigated that those mechanism varied by gender and age groups. Findings in this study showed that a resilient person may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Furthermore, this effect of ego-resilience was mediated through the searching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Additionally, findings regarding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ego-resilience mediated through searching for the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on posttraumatic growth would constant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groups. Limit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Ego-resilience, Meaning in life,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